

# 노동시장 동향

## 경제일반

### ◆ 생산·소비·투자 전부문에서 증가

○ 2005년 10월 산업활동은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8.0%, 5.8% 증가하였고, 도·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1.7% 증가하였음.

– 10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분규 영향이 해소되고, 반도체(36.7%), 영상음향통신(12.0%)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투자는 전기전자기기와 컴퓨터 등에서 증가하여 1.7% 증가함(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통신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음(전월 대비 5.5% 증가). 금융 및 보험업, 의료업, 운수업 등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2개월째 증가세 유지됨(그림 2 참조).

– 도·소매판매는 도매업(0.8%), 소매업(2.0%), 자동차 및 차량연료소매(3.2%) 모두 증가하여 1.4%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5.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7%로 전월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3				2004				2005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10월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p	10월p
생산	광공업 생산	6.1	3.1	3.0	7.7	11.3	12.7	11.4	5.8	6.7	3.8	4.0	6.9	8.0
	제조업 생산	5.7	2.9	3.0	8.0	11.9	13.2	11.6	6.0	7.0	3.5	3.9	7.0	8.2
	출 하	4.4	2.8	2.5	6.7	10.0	10.8	10.1	4.9	5.8	3.5	3.5	6.1	5.8
	수 출	7.3	9.9	11.2	17.6	21.9	23.4	20.4	13.9	15.0	10.9	6.8	8.0	10.4
	내 수	2.8	-0.7	-2.1	0.9	3.7	3.8	4.1	-0.7	0.3	-1.2	1.4	4.6	2.5
	서비스업 생산	1.9	0.9	0.5	0.6	2.1	0.9	-0.5	-0.8	-0.2	0.7	2.4	5.3	4.7
소비	도소매 판매	1.7	-1.5	-2.3	-2.0	-0.2	-0.6	-1.1	-1.8	-1.4	-1.0	2.6	3.6	1.4
투자	설비투자	2.6	0.2	-6.4	-5.3	-2.0	3.2	3.8	-0.5	-0.1	4.0	1.4	0.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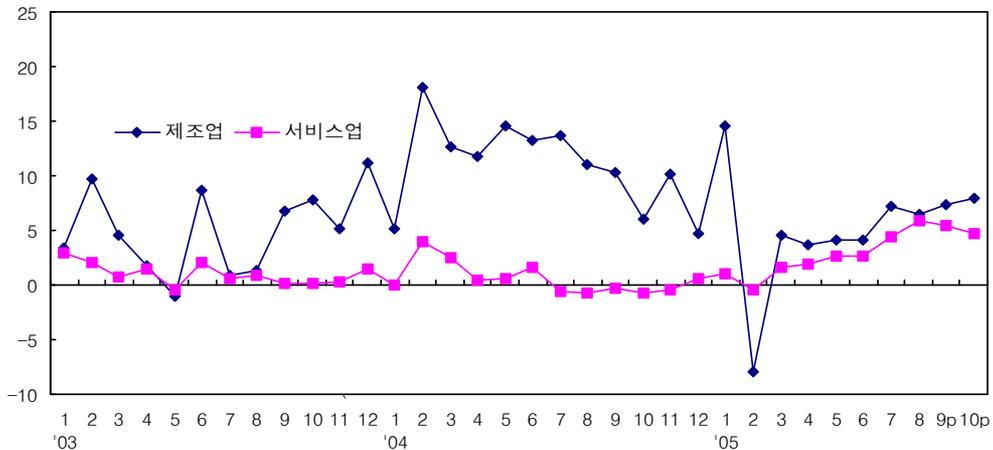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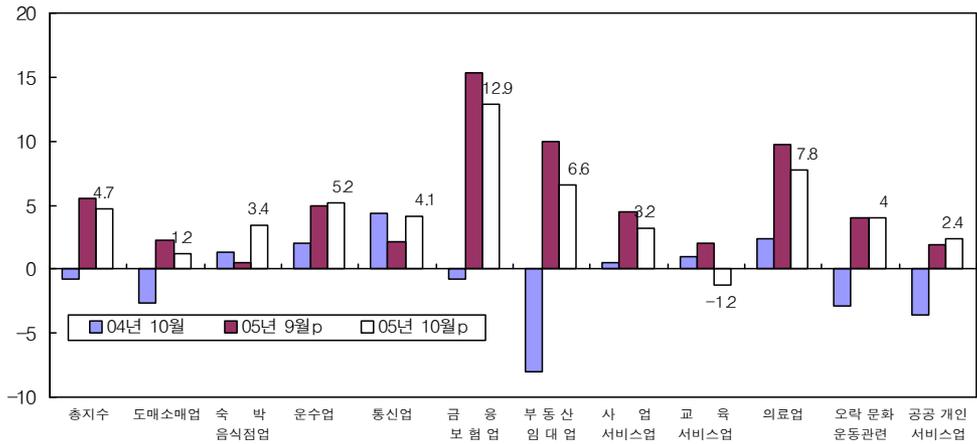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5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05. 11.

——, 『2005년 10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11.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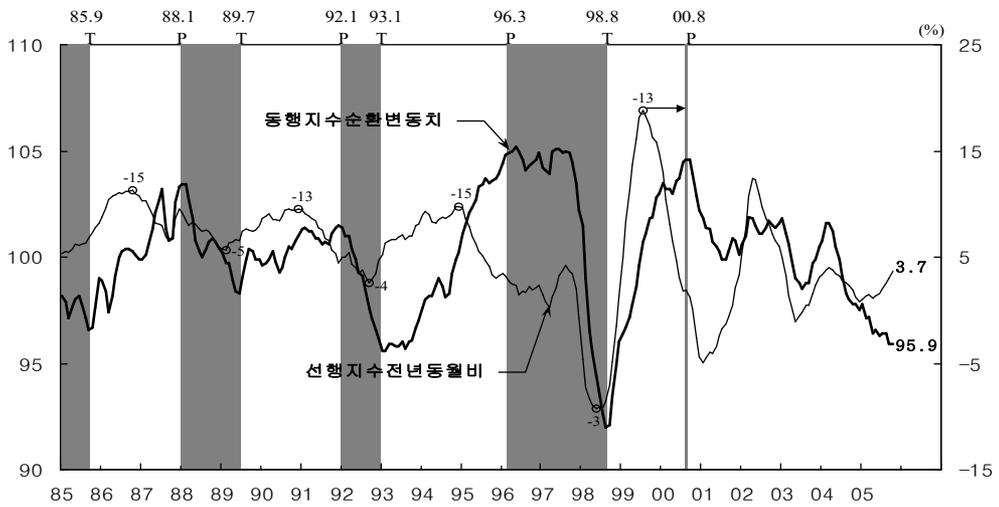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5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05. 11.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감소 고용률 증가

- 2005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9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5천명(1.5%)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946천명으로 97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030천명으로 258천명(2.6%) 증가함.
- 2005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성(74.5%)이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50.7%)은 0.5%포인트 상승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4월 이후 꾸준히 50%를 넘게 유지함.
- 2005년 11월 중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1.9%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3%로 0.5%포인트 증가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며 그 증가세가 지속됨(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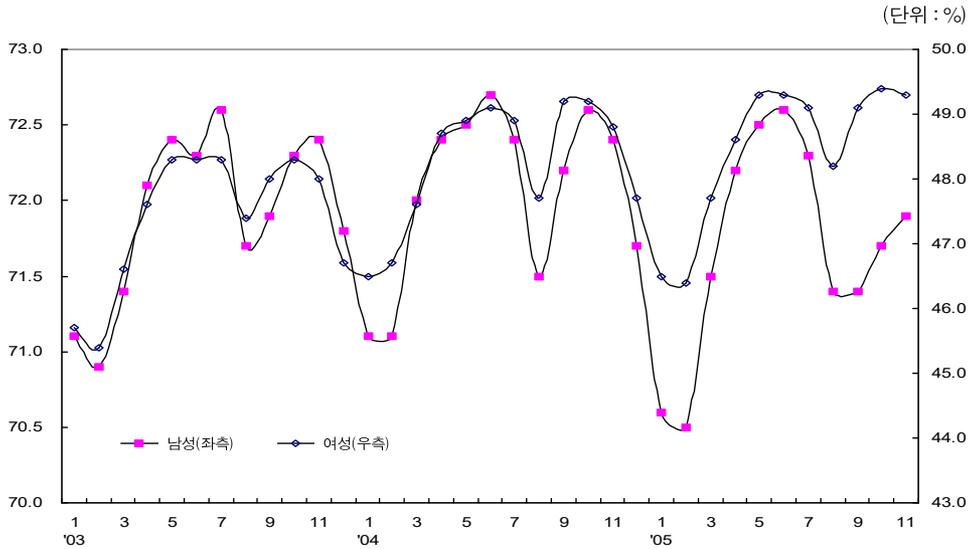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3,035 ( 2.5)	23,576 ( 2.1)	23,482 ( 1.7)	23,575 ( 1.8)	23,621 ( 1.6)	23,221 ( 0.8)	24,004 ( 1.8)	23,893 ( 1.8)	24,056 ( 1.5)	23,976 ( 1.5)
참가율	61.3	62.6	62.2	62.3	62.4	61.1	62.7	62.2	62.5	62.3
취업자	22,104 ( 2.2)	22,744 ( 2.0)	22,647 ( 1.6)	22,733 ( 1.8)	22,802 ( 1.7)	22,247 ( 0.6)	23,126 ( 1.7)	23,026 ( 1.7)	23,186 ( 1.2)	23,191 ( 1.7)
고용률	58.8	60.4	60.0	60.1	60.2	58.5	60.4	59.9	60.3	60.3
실업자	931	831	835	842	819	975	878	867	870	785
실업률	4.0	3.3	3.6	3.6	3.5	4.2	3.7	3.6	3.6	3.3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289 ( 0.0)	14,273 (-0.3)	14,227 ( 0.0)	14,789 ( 1.7)	14,271 ( 1.2)	14,533 ( 1.7)	14,412 ( 2.1)	14,511 ( 2.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11월 고용동향』, 2005. 12.

(그림 4) 성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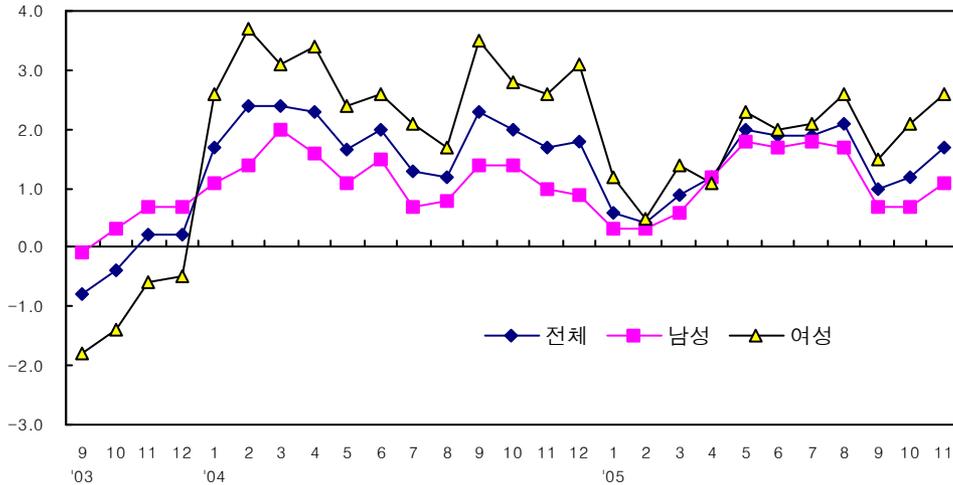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5년 11월 중 취업자는 23,1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9천명(1.7%)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4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3천명(1.1%), 여성 취업자는 9,7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6천명(2.6%)이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 증가세를 보임(그림 5 참조).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50대(288천명, 8.3%)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5년 11월 중 실업자는 78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명(-4.1%)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감소함.
  - 남성 실업자는 496천명으로 43천명(-8.5%)이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89천명으로 12천명(4.4%)이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성이 0.3%포인트 감소한 3.6%를, 여성이 0.1%포인트 증가한 2.9%를 기록함.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에 따른 영향으로 10월과 11월의 여성 실업률이 급증함.
- 2005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5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4천명(2.0%)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 증가하였고, 증가추세가 지속됨.

※ 구직단념자 추이 : 99천명(2004. 11) → 114천명(2005. 6) → 123천명(2005. 9) → 125천명(2005. 10) → 121천명(2005. 11)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서비스관련업 취업자 증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5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36천명, 6.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천명, 5.0%)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107천명, -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7천명, -1.0%), 건설업(-6천명, -0.3%) 등에서는 감소함.

- 2004년 12월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 (그림 6 참조).
- 2005년 11월 중 약 3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나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원 모집 (약 10만명)에 따른 효과가 포함된 것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73천명, 1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46천명, 1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서비스(69천명, 8.9%) 등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산업	22,104 ( 2.2)	22,744 ( 2.0)	22,647 ( 1.6)	22,733 ( 1.8)	22,802 ( 1.7)	22,247 ( 0.6)	23,126 ( 1.7)	23,026 ( 1.7)	23,186 ( 1.2)	23,191 ( 1.7)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33 (-7.5)	1,789 (-4.9)	1,829 (-6.6)	1,525 (-5.2)	2,018 ( 2.5)	1,965 ( 1.7)	1,962 (-1.4)	1,842 ( 0.7)
제조업	4,278 ( 2.6)	4,308 ( 1.7)	4,278 ( 2.7)	4,296 ( 1.2)	4,304 ( 1.4)	4,260 (-0.4)	4,257 (-1.2)	4,200 (-1.8)	4,241 (-1.9)	4,197 (-2.5)
건설업	1,762 ( 1.6)	1,864 ( 0.6)	1,790 (-1.7)	1,864 ( 0.6)	1,877 ( 0.1)	1,692 (-4.0)	1,897 ( 1.8)	1,836 ( 2.6)	1,862 (-0.6)	1,871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12 (-0.1)	5,866 ( 0.5)	5,819 ( 0.2)	5,853 ( 0.0)	5,863 ( 0.3)	5,835 (-1.3)	5,796 (-1.2)	5,783 (-0.6)	5,782 (-0.5)	5,806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62 ( 7.3)	6,542 ( 8.0)	6,617 ( 5.8)	6,711 ( 6.1)	6,720 ( 6.1)	6,714 ( 5.5)	6,907 ( 5.6)	6,974 ( 5.4)	7,055 ( 5.5)	7,155 ( 6.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 0.2)	2,197 ( 2.6)	2,205 ( 2.4)	2,195 ( 2.0)	2,202 ( 1.8)	2,233 ( 2.3)	2,252 ( 2.5)	2,266 ( 3.0)	2,305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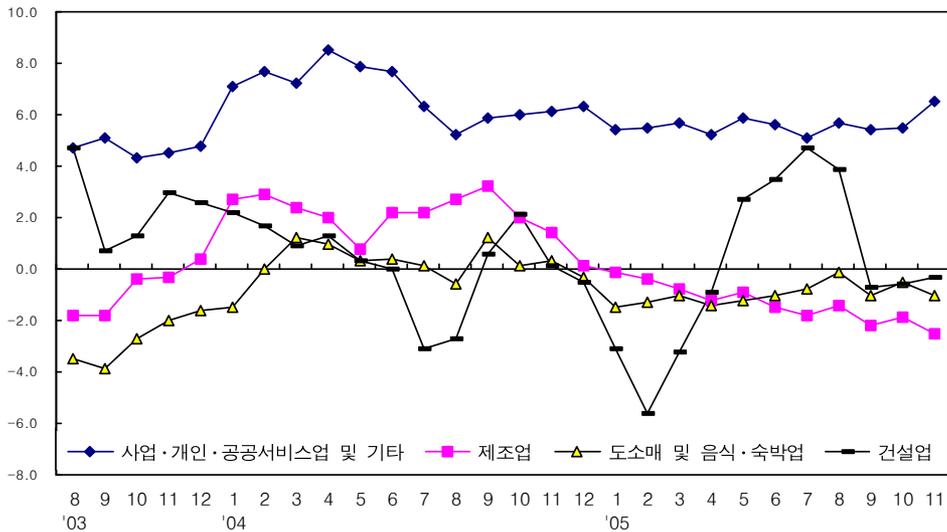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11월 고용동향』, 2005. 12.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시근로자 증가세 지속,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 2005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7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명(1.1%)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4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6천명(2.0%)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179천명, 2.3%), 임시근로자(89천명, 1.8%), 일용근로자(39천명, 1.7%) 모두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임시근로자는 7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7 참조).
- 2005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5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3천명(3.7%),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407천명으로 329천명(1.6%)이 증가함.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으로 인한 취업자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전체적인 고용사정은 임시·일용직의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0월	11월
전 체	22,104 ( 2.2)	22,744 ( 2.0)	22,647 ( 1.6)	22,733 ( 1.8)	22,802 ( 1.7)	22,247 ( 0.6)	23,126 ( 1.7)	23,026 ( 1.7)	23,186 ( 1.2)	23,191 ( 1.7)
비임금근로자	7,490 ( 0.3)	7,762 (-0.4)	7,769 (-2.1)	7,631 (-1.5)	7,673 (-1.6)	7,391 (-1.3)	7,772 ( 0.1)	7,843 ( 1.0)	7,849 ( 0.2)	7,756 ( 1.1)
자영업주	6,001 ( 2.3)	6,136 ( 1.9)	6,177 ( 0.1)	6,126 ( 0.2)	6,152 ( 0.1)	6,022 ( 0.4)	6,210 ( 1.2)	6,272 ( 1.5)	6,260 ( 0.8)	6,221 ( 1.1)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593 (-9.9)	1,505 (-8.0)	1,521 (-8.0)	1,368 (-8.1)	1,562 (-3.9)	1,571 (-1.3)	1,589 (-2.2)	1,535 ( 0.9)
임금근로자	14,614 ( 3.2)	14,983 ( 3.3)	14,878 ( 3.6)	15,102 ( 3.6)	15,129 ( 3.4)	14,856 ( 1.7)	15,354 ( 2.5)	15,183 ( 2.1)	15,336 ( 1.8)	15,436 ( 2.0)
상용근로자	7,460 ( 4.0)	7,586 ( 4.6)	7,671 ( 5.5)	7,781 ( 5.4)	7,792 ( 5.5)	7,803 ( 4.9)	7,936 ( 4.6)	7,945 ( 3.6)	8,004 ( 2.9)	7,971 ( 2.3)
임시근로자	5,067 ( 3.3)	5,199 ( 2.3)	5,035 ( 0.9)	5,026 (-0.3)	5,020 (-0.5)	4,968 (-2.0)	5,112 (-1.7)	5,022 (-0.3)	5,109 ( 2.6)	5,109 ( 1.8)
일용근로자	2,087 ( 0.0)	2,197 ( 0.9)	2,172 ( 3.5)	2,295 ( 6.5)	2,317 ( 5.6)	2,085 (-0.1)	2,306 ( 4.9)	2,216 ( 2.0)	2,224 (-3.7)	2,355 ( 1.7)
36시간 미만	2,587 ( 0.8)	2,509 (27.9)	2,687 (-10.0)	2,501 ( 5.5)	2,499 ( 5.6)	2,757 ( 6.7)	2,411 (-3.6)	3,138 (16.8)	2,375 ( 5.6)	2,593 ( 3.8)
36시간 이상	19,125 ( 0.8)	20,004 (-0.8)	19,563 ( 3.6)	20,000 ( 1.4)	20,079 ( 1.3)	18,783 (-1.8)	20,473 ( 2.3)	19,476 (-0.4)	20,582 ( 0.8)	20,407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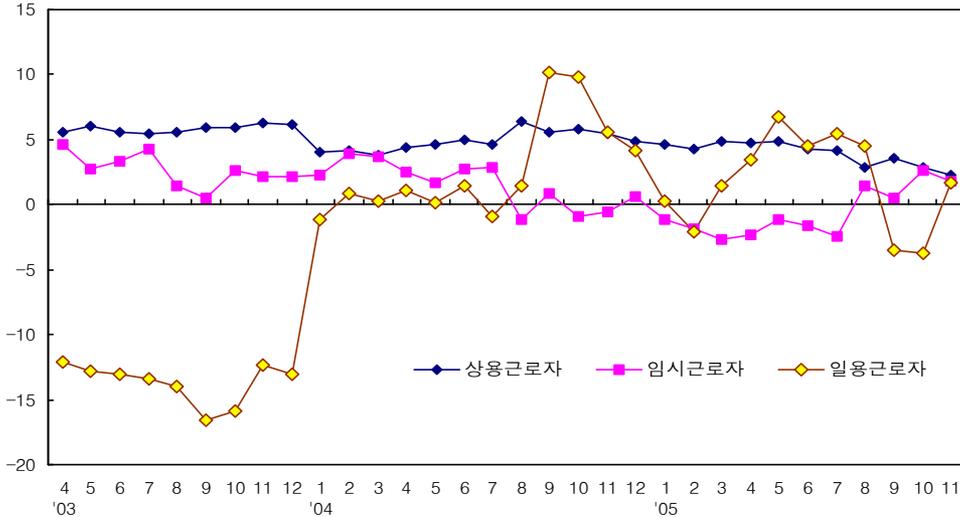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11월 고용동향』, 2005. 12.

와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증가추세 지속 등 체감고용사정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줌.

- 고용의 양은 증가했으나 양질의 수요가 요구됨.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청년층, 고졸 이하의 실업률 감소

- 2005년 1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에서 감소하고 3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증가
  - 2005년 11월 중 청년층(19~29세)에서의 실업자는 344천명으로(-0.4%) 36천명이 감소했고, 2005년 4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함(그림 8 참조).
  -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중졸 이하 26천명(2.2%, -0.3%포인트), 고졸 26천명(4.1%, -0.3%포인트)에서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 18천명(3.0% 0.1%포인트) 증가함.
- 2005년 11월 중 전체 실업자 785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755천명으로 26천명 감소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931(4.0)	831(3.5)	835(3.6)	842(3.6)	819(3.5)	975(4.2)	878(3.7)	867(3.6)	870(3.6)	785(3.3)
15~29세	472(9.3)	402(8.1)	374(7.5)	400(8.1)	380(7.7)	448(9.0)	377(7.8)	368(7.6)	340(7.2)	344(7.3)
30~39세	193(3.0)	186(2.9)	204(3.2)	201(3.2)	194(3.0)	224(3.6)	200(3.2)	209(3.3)	228(3.6)	199(3.1)
40~49세	159(2.5)	138(2.2)	152(2.4)	141(2.2)	143(2.2)	182(2.9)	165(2.5)	161(2.5)	178(2.7)	136(2.1)
50~59세	79(2.4)	77(2.2)	78(2.3)	78(2.2)	78(2.2)	94(2.7)	94(2.5)	98(2.6)	93(2.4)	81(2.1)
60세 이상	28(1.4)	29(1.2)	27(1.2)	23(1.0)	24(1.0)	23(1.3)	42(1.6)	32(1.3)	31(1.2)	26(1.0)
중졸 이하	155(2.7)	141(2.3)	153(2.6)	144(2.4)	153(2.5)	169(3.1)	161(2.7)	148(2.5)	148(2.5)	127(2.2)
고졸	495(4.9)	423(4.2)	443(4.3)	478(4.7)	451(4.4)	528(5.2)	444(4.3)	466(4.5)	468(4.5)	425(4.1)
대졸 이상	280(3.9)	268(3.6)	239(3.3)	220(3.0)	215(2.9)	277(3.7)	273(3.5)	253(3.3)	254(3.3)	234(3.0)
신규실업자	86	52	32	40	39	60	41	32	30	30
전직실업자	845	779	803	803	780	915	837	835	840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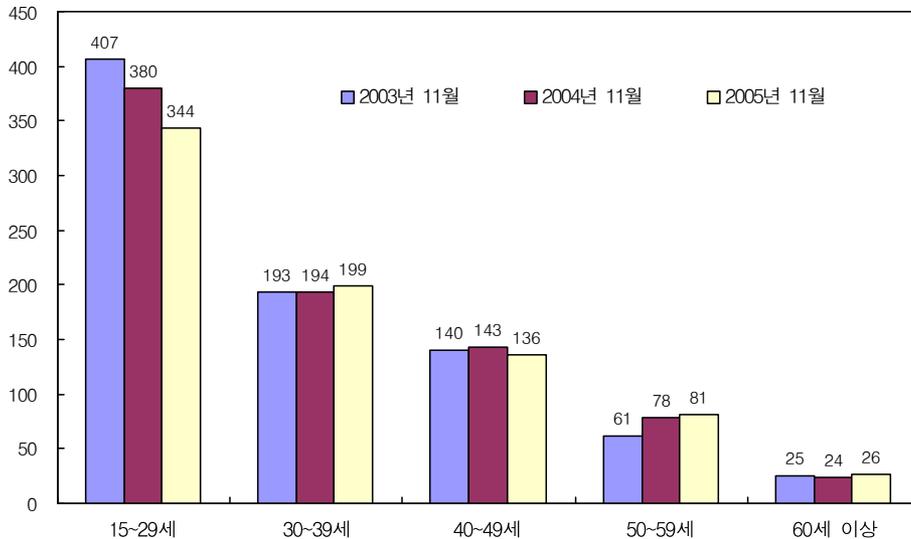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11월 고용동향』, 2005. 12.

〔그림 8〕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금 동향

### ◆ 2005년 9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3.9%포인트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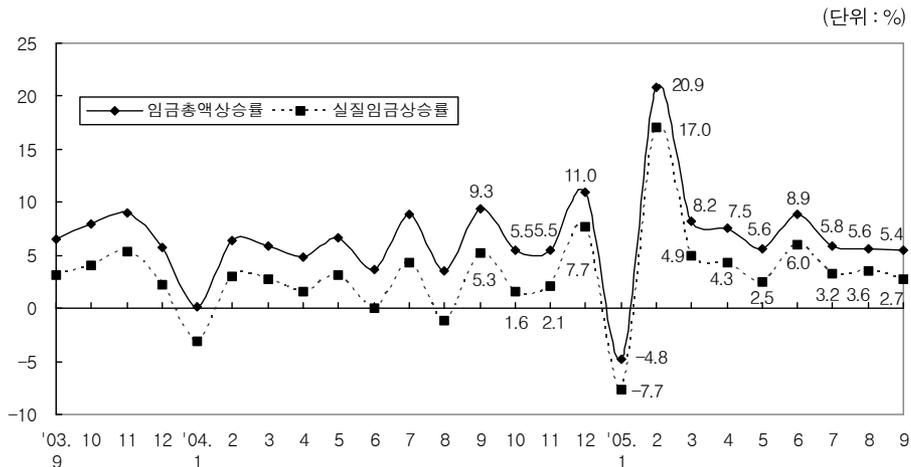
○ 2005년 9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31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4%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9.3%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치임.
- 1~9월의 임금총액은 2,35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상승
- 2005년 9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특별 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산업별로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낮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2.7% 상승

- 2005년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2.7% 상승함.
- 1~9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3.9%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9]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9월
								9월		
임 금 총 액	2,255 (6.0)	2,185 ( 3.9)	2,115 ( 5.0)	2,324 (7.3)	2,399 ( 7.7)	2,348 (7.5)	2,272 (7.4)	2,454 (5.6)	2,631 (5.4)	2,358 (6.8)
정 액 급 여	1,636 (6.8)	1,599 ( 7.0)	1,613 ( 6.6)	1,643 (6.9)	1,690 ( 6.7)	1,726 (8.0)	1,734 (7.6)	1,761 (7.2)	1,768 (7.0)	1,740 (7.6)
초 과 급 여	137 (1.7)	132 ( 3.1)	138 ( 2.5)	137 (2.5)	143 (-1.0)	142 (7.8)	151 (8.9)	147 (7.9)	146 (3.8)	147 (8.2)
특 별 급 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87 (6.2)	545 (0.2)	717 (2.1)	471 (3.7)
실 질 임 금 지 수	117.9 (2.3)	115.5 ( 0.6)	111.1 ( 1.6)	120.5 (2.9)	124.5 ( 4.1)	120.3 (4.2)	115.8 (4.3)	124.4 (3.2)	132.6 (2.7)	120.2 (3.9)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4.7 (3.6)	113.4 ( 3.3)	114.2 ( 3.3)	115.6 (4.3)	115.5 ( 3.4)	117.0 (3.2)	117.6 (3.0)	118.3 (2.3)	119.0 (2.7)	117.6 (2.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7%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11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8%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5%보다 0.7%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9%로 전년동기의 5.6%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3.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8%에 비해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11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4,77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77.6%)보다 낮은 76.6%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77.4%로 6,024개소 중 4,660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111개소가 타결되어 54.4%의 진도율을 기록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11월 30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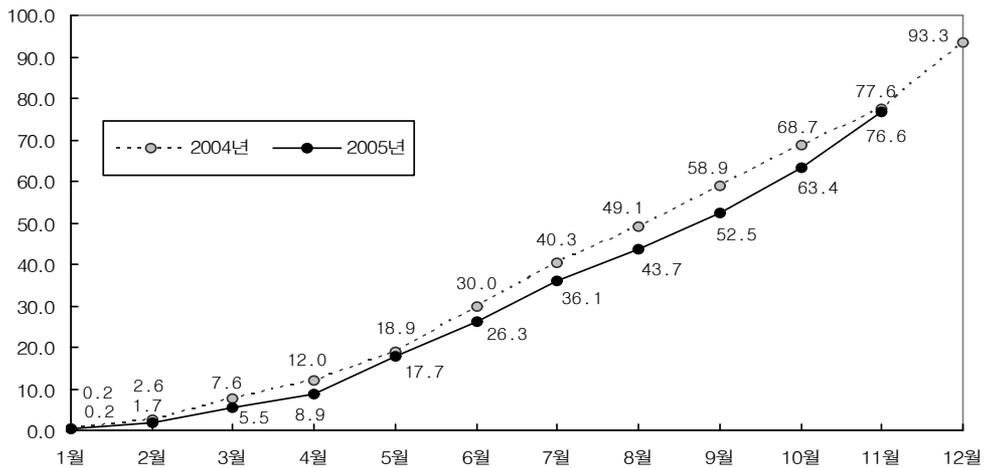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4,771 (4,587)	76.6 (77.6)	4.8 (5.5)
민간부문	6,024 (5,727)	4,660 (4,484)	77.4 (78.3)	4.9 (5.6)
공공부문	204 ( 182)	111 ( 103)	54.4 (56.6)	3.1 (2.8)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10〕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